

'50여 년 물 걱정 끝'...진도 외딴섬 외병도 식수난 해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주관 통수식...해묵은 주민숙원 해결

20억원 투자...연말까지 태양광 설치·상하수도 시설 구축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의 급수문제가 해결됐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외병도리 선착장에서 통수식이 열렸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외병도 주민들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태양광 설치, 상하수도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외병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는 국립공원 내 37개 낙도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항에서 18km 떨어져 있고, 목포항에서는 7시간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외딴섬 외병도의 주민들은 지난 50여년간 급수선과 빗물을 이용해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해 왔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외병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수 개발과 급수시설을 설치해 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외병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이 개선되고 생태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수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를 포함해 한화진 환경부장관, 윤재갑 국회의원,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희동 전남도의원,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 송영근 국립공원 이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1968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1951년생 외병도 출신 김예자 할머니(당신 13세)의 "차리리 이 섬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물 부족과 열악한 환경에 힘겨워하는 일기가 기사화 되기도 했다.

한편 진도군은 향후 국립공원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공원마을지구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협력과 투자를 활대하여 외병도를 살고 싶은 섬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 임원회의 개최

코로나 19로 지연된 감사패, 임명장·표창장 수여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는 지난 10일 팔마체육관 3층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전달할 수 없었던 감사패, 임명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원회의는 61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 및 선포식, 박주영 회장의 개회선언, 양두남 여성회장의 활동강령朗독, 감사패, 임명장, 표창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주영 회장은 보해양조 순천지점 이상현 지점장, 송진마을 송국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귀옥 이사, 장금자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일년만에 강순희 왕조1동위 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장 수여, 임영곤 부회장, 박용학 저전동위원장, 박정순 풍덕동위원장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장 수여, 이삼열 장학분과 위원장에게 금장증을 수여했다.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24개 읍면동위원장들에게 소병철 국회

의원의 표창장 수여, 순천시장 표장에는 낙안면위원회 주교진 사무장 등 12명에게 순천시장 표장 수여, 송은숙 중앙동위원회 회원 등 6명에게 순천시의장 표장 수여, 장문심 덕연동 위원회 회원 등 3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남제동위원회 유재현 회원 등 5명에게 전라남도체육회장 표장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정영옥 명예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마스크를 100장 제작해 참석자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순천시협의회 초대 여성회장을 역임한 윤자 시인이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아울러 남제동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에 김태옥 남제동장 등이 참석 꽃다발 전달과 축하의 말, 순천시협의회 양두남 여성회장의 수박 제공, 박주영 회장은 수모든 수상자에게 꽃화분을 전달하며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순천=조준의 기자

'강진군 병영돼지불고기거리' 식도락 여행지 주목

5월 거리 방문의 달 행사...음식점 서비스 개선 등 명품화 사업 순항

강진군 병영면 돼지불고기거리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이후 전국의 식도락 여행객들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가 12일 밝혔다.

주말에는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가 하면 일부 업소는 준비한 재료가 일찍 소진돼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강진군은 병영돼지불고기거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리 일대 홍보

와 방문객 유치를 위해 5월을 병영돼지불고기거리 방문의 달로 지정하고 주말 음식점 일제 할인 이벤트, 황금돼지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식점들의 매출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0% 증가했다.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병영 돼지불고기 브랜드화, 맛 개선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올해 4월 착수해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음식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개 업소에 '난로 그릇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등 음식문화 개선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병영돼지불고기거리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5월 거리 방문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병영 돼지불고기거리가 전남의 대표 음식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해남 '현장에서 답을 찾다' 민선8기 정책 발굴 분주

명현관 군수 연일 주요사업장 찾아 현장점검·공무원 '현문현답' 프로그램



해남군이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문현답' 군정 운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남군은 성공적인 민선7기의 마무리와 8기 시작을 위해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 누수 없는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새롭게 추진할 정책 빌미를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난 2일 군정에 복귀한 명현관 군수는 신청사 개청 및 군민광장 조성 사업 등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주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지난 7일에는 해남군 신청사 개청

식이 열렸으며, 8일에는 해남읍 과학 영농종합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민선7기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청사 신축은 지난해 9월 완공되어 이를 전을 마친 상태로, 구청사 철거와 함께 곧바로 시작된 군민광장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역사적인 개청식 행사를 갖게 됐다.

또한 영농서비스에 대한 농업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해남읍 과학영농종합시설을 현장점검했다.

지9일에는 신축중인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2

억원, 지방비 108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 및 가족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본격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군 공직자들도 군정 주요 사업장을 심층 견학하는 '현문현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9일 해남군청 공직자 40명은 솔라 시도 기업도시, 우수영 역사관광촌,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등 관내 대규모 현대사업장을 방문해 주진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선7기 역점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의 현황에 대한 정책 공감을 이루고, 군정 전반에 대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전 주요사업에 대한 모든 현황점검을 끝내고, 누수 없는 사업추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 강화에 힘써달라"며 "주요사업들에 대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신규과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함평 노인복지관, 어르신 '디지털 체험존' 운영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 기대

함평군 노인복지관이 노년층 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손을 맞잡았다.

12일 군 노인복지관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매주 수요일) 및 디지털 체험존(함평읍 오일장날)을 운영한다.

노인복지관은 기본적인 정보화 교

육뿐 아니라 디지털 체험존을 마련해 스마트폰, 키오스크, 태블릿PC 등 디지털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복희 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생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정섭 기자

곡성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오는 17일까지 신청

곡성군이 안전한 관광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 안전 시설 지원 사업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 안전 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은 2021년부터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사업을 통해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 시설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등 인천 시설, 그리고 체온계, 손소독 별열 체크기 등 기타 안전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농어촌민박 1개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안전성 더욱 강화하고, 민박 측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인성이 높은 아광 소화기, 피난 유도선을 지원 품목으로 추가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유사시 응급 조치를 위해 방역 소독기와 대용량 소화기(20kg)까지 지원 품목으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시설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농촌 관광을 즐기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광양시 골약동 황방마을 골목길 벽화 조성...마을 분위기 밝아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

광양시 골약동 등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황방마을을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이 주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년부터 실시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올해 신규로 선정된 황방마을은, 지난 5월 30일~6월 4일까지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아 골목 벽면



을 활용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선정·추진했다.

황방마을은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장인 이동일 통장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완성된 벽화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며, "앞으로도 폐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주민들과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금 골약동장은 "벽화 그리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마을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약동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작년 3개 마을(용장, 정산, 대화)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로 4개 마을(황방, 하포, 고길, 군장)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마을별로 매해 300만 원씩 3년간 총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광양=조준의 기자

구례 정리수납전문가

교육생 17일까지 모집

구례군은 오는 17일까지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소질을 갖춘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정리수납의 개념과 필요성, 수납의 기본원칙과 단계, 공기별 효율적인 수납 정리 방법 등이며, 전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을 시기 기회가 제공된다.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리 수납 컨설턴트 및 전문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업체 및 하우스클리닝 관련 업체 취·창업에도 유리해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오광범 기자

화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4명 모집한다

화순군이 2022년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수행할 조사원 4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컴퓨터, 인터넷,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사원은 사전교육을 거쳐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를 수행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책임감 있고 성실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div